



있었고 그 밑은 小川石을 깔았으며 第一室에서는 南側만을 남기고 北壁에 붙여서 같은 솥씨의 壇을 쌓은 다음 그 위에 遺骸를安置하였다. 遺骸를埋葬하는 데는 第二室 北端에서 一具分の 木棺片이 腐蝕되어 있었을 뿐 다른 데서는 特別한 施設이 發見되지 않았다. 遺骸는 第一室에 五體 第二室에 六體가安置되었던 듯한데 頭部는 東向한 듯이 보였다. 遺骨은 거의 完全히 腐蝕되어

있었다. 副葬品은 매우 貧弱한 便으로 封土에서 土器와 鐵刀가 發見되었고 第一室에서 鐵鏃을 비롯한 若干의 鐵製品과 副室에서 土器가 發見되었고 第二室에서 金製環, 金銅製環을 비롯한 若干의 裝身具가 發見되었을 뿐이다. 다만 異例의 點은 主室에서는 單一點의 土器도 없었다는 點이었다. 第一室은 盜掘後이고 또 副室에 土器를 副葬하였다 하더라도 第二室에서는 끝내 副室을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盜掘痕蹟이 없는 主室內에서도 一片의 土器도 없었다.

이 두개의 石室이 本封墳의 主要部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第一室과 第二室은 約 一m餘의 高底差가 있다. 즉 第一室이 낮고 第二室이 높은

데 第一室이 먼저 되었고 후에 第一室의 封土의 一部를 헐고 第二室을 만들어 하나의 封土를 만든 듯하다.

第二室 西側即 封土의 西端에서 뜻하지 않았던 小石室과 甕棺이出現하였다. 第一室, 第二室의 長軸이 正確히 南北을 가르고 甕棺 역시 正確한 南北을 가르고 있는데 小石室은 南端이 約 二十度程度 西側하였고 이 두개의 墳墓를 中心으로 圓形으로 石塊가 周圍에 놓여있다. 이 區域은 第二室 蓋石面보다 約 二〇cm 높았는데 小石室안에서는 土器破片若干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小石室과 甕棺이 并存한 例를 慶北大學校博物館에서 調査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적은 墳墓가 第一室이나 第二室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는 이제 곧 解明할 수 없으나 興味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目標한 墳墓를 調査하는 途中이 墳墓의 北쪽 「꽃산」에서 土器가 露出되었다는 現地 中學生들의 報告를 듣고 이것도 아울러 調査하였는데 이 墳墓는 封土가 完全히 流失되어서 石室과 土器의 一部가 露出되었던 것이다. 周圍에는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外護石이 있고 그 안에 一個의 長方形石室이 있는데 모두 南을 向하였고 그 中 一室은 完存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石室의 南壁이 流失되었고 그 바람에 副葬品도 流失된 듯 하는 完存한 石室에는 南壁에 붙여서 土器와 鐵製馬具가 原狀대로 發見되었다. 이 꽃산에는 無數한 小形墳墓가 있어 封土의 流失로 因하여 石室이나 土器가 露出되는 例가 많은데 꽃산 墳墓를 調査하는 途中 그 밑 二個處에서 土器가 露出되어 採集한 일이었다.

益山出土의 全金小佛坐像

黃 壽 永

石窟庵에서 上京하던 九月十六日 午後의 일이다. 몸이 피로워 자리에



누었는데 마침全州 張衡植氏로부터 長文의 書信을 받고 급히 종이와 잉크를 찾았다. 그리하여 二、三日中에 出發 하겠다는 回信을 發送케 하였는데 그사이 興奮된 時間이

지났다. 干支銘이 있는 純金の 新羅佛인데 出土地가 益山이라는 內容이 緊張케 하였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九月二十日 午後二時가 넘어 全州에 도착하여 마침내 張氏와 같이 全州地方檢察廳을 찾았다.

二

혹시 百濟의 在銘金銅佛이나 아닐까 하는 期待는 첫눈에 어긋남을 곧 느낄 수 있었다. 꼬리표가 달린 黃金色 찬란한 證據物件이 女事務員의 손으로 옮겨져서 눈앞에 놓여졌다. 높이 五cm에 불과한 板狀小像인데서 운한 느낌이 들었으나 保存이 完全하며 細工이 精巧함에 차차 沈着을 되 찾을 수 있었다. 데블에 둘러앉은 여러사람들은 나의 表情만 凝視하고 沈默을 지키고 있었다.

이 小金佛은 護身願佛의 하나일 것이다. 그 背面에 卍形의 卍形의 고리가 있어 小龕같은 곳에 固定시켰던 것이 틀림없다. 이 자리에서 德壽宮美術館같은 곳에 所藏되어 있는 類品이 먼저 떠올랐다. 더욱이 背面板에서 「男善人」「辛丑」「正月日」「金世昭」라한 細線刻銘이 判續되므로써 그와같이 首肯되었다. 出土地가 확실한 在銘佛의 遺例가 하나 增加하였다는 事實이 實物을 初對하면서 즐거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 板佛은 매우 작으나마 三部로 만들어지고 있다. 첫째 金板으로서 如來坐像의 形態를 두드러낸 다음 相好와 衣紋 등을 다시 切點刻으로서 마련하였다. 釋迦像으로서 仰・伏蓮座위에 結跏趺坐하여 降魔手印을 하였는데 白毫一點과 肉髻 螺髮 眼眸 衣褶 등 새김이 뚜렷하고 여

무지기 짝이 없는 名工의 精刻이었다. 다음에 光背板은 낮은 舟形(廣幅 三·五cm)인데 周緣의 火焰에는 透刻手法이 加하여지고 身部兩側으로는 對稱으로 蓮花唐草帶가, 頂部에는 寶蓋一座가 두드러지게 새겨졌는데 다시 點線紋으로 細部를 裝飾하였다. 이같은 身光 兩部를 背面에서 다시 背板에 끼어 있는 것도 時代樣式의 하나로서 浮石寺 本尊의 巨大한 塑造光背의 木造背板과 同一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三

出土는 全北 益山郡 礪山面 源水里 (獨笛골) 寺址라고 한다. 때마침 發見人(李秉老)이 廳內에서 取調를 받고 있다 하기에 面會를 청하여 經緯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八月六日 母親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얻은 것인데 첫눈에 「뿌로치」같기도 하나 하도 金色이 변적거리기에 옆 땅위에 꽂아 놓았다 한다. 俗談에 純金인 경우에는 제발로 옮겨간다고 傳하여 오므로 다시 돌아다 보았으나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히 여겨 집안사람과 동네에 돌려보기도 하였다. 마침내 아들이 現品을 갖고 가까운 忠南論山으로 銀房을 찾았더니 六勿의 금값을 주겠다고 하므로 그냥 돌아서는 찰나에 支署巡警에게 押收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퍼져 全州 黃冕周部長判事(全北道立博物館設立委員長)가 알게 되었다. 우리 管內의 것이니 返還하라고 大田檢察廳을 독촉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道立博物館의 開館을 며칠 앞두고 이같은 金佛의 出現은 吉兆가 아닐 수 없다고 모두 만족스러운 表情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바와 같이 新羅의 것은 아니며 高麗의 遺品임이 틀림없었다. 發見者에 對한 寬大한 處分을 바라면서 이 곳을 떠났는데 高麗金屬工藝의 높은 發達을 볼 수 있었던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男善人 金氏가 發願한 이 작은 造形으로 말기아마 오늘 이곳을 찾게 된 것은 妙好因緣이라 하겠다. (十月十二日 石窟庵에서 씀)